

2018년 6월 23일 서울시 9급 총평 및 해설

지안에듀 안효선

現 지안에듀 국어 전임

現 빅모의고사 해설 위원



국어 기초 다지기 특강 제공

▶ 한글국어: http://public.zianedu.com/front/ProductVodView?a_lLinkCtgKey=0&a_lGKey=106164

【총 평】

같은 해의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하여 쉽게 문제가 출제된 편이다. 문법의 경우 음운론 2문제, 형태론 3문제, 정서법 또는 통사론 문제 1문제와 어문규정 3문제가 출제되었다.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한자어와 한자성어의 경우 기존에 출제되었던 한자어가 다시 출제되었다. 특히 백수(白壽), 희수(喜壽), 미수(米壽) 등은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로 수업 시간에도 학습했던 단어들이다. 속담의 경우도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과 관련 있는 난도가 높지 않은 속담이 출제되었다. 비문학 작품의 경우 같은 해의 공무원 시험보다 길이가 짧고 답도 명확하였다. 문학은 문학사와 관련된 문제와 작품의 일부를 통해 작품에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명한 작가의 익숙한 작품이어서 크게 난해하지는 않았다.

【문항 분석】

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문법, 어문규정	총 9문항	문법과 어문규정 문제는 음운론~통사론에 이르기까지 고루 출제되었으며 비교적 문제도 쉬운 편에 속했다.
한자어와 한자성어	총 1문항	<보기>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한자성어를 고르는 문제(6번)와 어휘 부분으로 분류한,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12번) 문제 또한 기존에 출제된 단어들이어서 어렵지 않았다.
어휘	총 2문항	어휘는 속담(4번)과 나이와 관련된 한자어(12번)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난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비문학(작문 포함)	총 3문항	내용일치(5번) 문제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 (11번), 서술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18번)가 출제되었다.
문학	총 5문항	고전문학 1문제(19번), 현대문학 4문제가 출제되었다. 특히 문학사를 묻는 문제가 2문제(3번, 9번) 출제되었다. 16번은 문학 비평, 20번은(김승옥, 무진기행) 작품 일부를 보고 해당 작품이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이다.

【정 답】

(A) 형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④	①	②	③	②	③	③	③	④	①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①	②	④	①	②	②	①	①	①	④

【문항 해설】

1. 표준어끼리 묶인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물, 남사스럽다, 짹짹하다, 복숭아뼈
- ②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주책이다, 걸음
- ③ 찰지다, 잎새, 꼬리연, 푸르르다
- ④ 개발새발, 이쁘다, 덩쿨, 마실

[정답: ④]

④ 덩쿨 → 녕쿨, 덩굴

[오답 해설]

‘② 까탈스럽다, 결판지다, 주책이다, 걸음’이 모두 표준어로 짝지어진 선지이다.

특히 ‘주책이다’는 ‘주책없다’도 표준어임을 기억해야 한다.

▶ 단어의 뜻풀이

등물: 목물

남사스럽다: ‘남우세스럽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복숭아뼈: ‘복사뼈’와 함께 표준어이다.

까탈스럽다: 「1」 조건, 규정 따위가 복잡하고 엄격하여 적응하거나 적용하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2」성미나 취향 따위가 원만하지 않고 별스러워 맞춰 주기에 어려운 데가 있다.

결판지다: 「1」매우 푸지다. ≒ 거방지다 「3」.

「2」동작이나 모양이 크고 어수선하다.

「3」『북한어』너부죽하고 듬직하다.

주책: 「1」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

「2」일정한 쯤대가 없이 되는대로 하는 짓.

걸음: 「1」드러내 놓고 우는 울음.

「2」마음에 없이 겉으로만 우는 울음.

개발새발: 개의 발과 새의 발이라는 뜻으로, 글씨를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모양을 이르는 말.

‘괴발개발’도 표준어이다.

잎새: ‘잎사귀’와 함께 표준어이며, 주로 문학 작품에 쓰인다.

푸르르다: ‘푸르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쁘다: ‘예쁘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마실: ‘마을’을 이르는 말로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을 의미할 때는 표준어이나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을 의미할 때는 비표준어이다.

출제범위: 어문 규정 - 표준어 규정

2. 문장쓰기 어법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한국 정부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②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경역 혁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 ③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 ④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 가능은 높은 편이다.

[정답: ①]

[오답 해설]

② 요구되어지고 → 요구되고

③ ‘이것은 ~ 생각이든다’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이것은 아직도 한국 사회가 무사안일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④ ‘16강 티켓’의 무슨 가능성인지 알 수 없다.

→ 냉정하게 전력을 평가해 봐도 한국이 자력으로 16강 티켓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출제범위: 문법 - 정서법

3. 6.25 전쟁과 가장 거리가 먼 소설은?

- ① 손창섭, 『비오는 날』
- ② 박경리, 『토지』
- ③ 장용학, 『요한시집』
- ④ 박완서, 『엄마의 말뚝』

[정답: ②]

박경리의 <토지>는 구한말의 몰락과 일제강점기에 이르는 최 씨 일가의 가족사를 통하여 한민족의 고난을 그려낸 대하소설이다. 총 5부(총 16권)작이며 제일 마지막 5권이 1940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를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 ① 손창섭의 <비오는 날>은 한국 전쟁 전후의 암울한 현실을 그려낸 단편소설이다. 출전: 1953년 『문예(文藝)』 11월호
- ③ 장용학의 <요한 시집>은 한국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주인공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목을 매어 죽기까지,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의식을 그려내고 있다. 출전: 1955년 《현대문학》 7월호
- ④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은 식민지 시기를 배경으로 한 1권과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2권, 투병 중이었던 엄마가 돌아가기까지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3권으로 나뉜다. 박완서 작가의 작품은 주소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한 일인칭 서술자 시점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전: 1979년 11월 『문학사상』

출제범위: 문학 - 현대 소설 문학사

4. ‘권력의 무상함’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달도 차면 기운다.
- ② 열흘 붉은 꽃은 없다.
-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
-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정답: ③]

‘권력의 무상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③ 물도 가다 구비를 친다’이다.

이 속담은 “사람의 한평생에는 전환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로 권세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달도 차면 기운다: 세상의 온갖 것이 한번 번성하면 다시 쇠하기 마련이라는 말.

②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봄꽃도 한 때’라는 뜻으로 한번 성한 것이 얼마 못가 반드시 쇠한다는 의미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權不十年 花無十日紅)]

④ 꽃이 시들면 오던 나비도 안 온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과 같은 뜻으로, 꽃이 지면 그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권력의 무상함을 의미한다.

출제범위: 어휘 - 속담

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 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 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불과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정답: ②]

②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에서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① 글에서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라는 데서 아메리카는 신세계고, 유럽은 구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글에서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고 제시되어 있다. 즉 구세계의 병원균 때문에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글에서 고고학적 발굴, 처음 미국 해안 지방을 밟은 유럽인 탐험가의 기록을 통해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이주를 정당화하는 잘못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제범위: 비문학 - 내용일치

6. <보기>의 괄호에 알맞은 한자성어는?

<보기>

일을 하다 보면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이다. 흔히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은 여기게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 결점을 바로잡으려다 본질을 해치는 ()의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③ 교각살우(矯角殺牛)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정답: ③]

“부분적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가 정작 일 자체를 뒤엎어 버리는 경우”에 해당하는 한자성어는 ‘교각살우(矯角殺牛, 矯 바로잡을 교/角 뿔 각/殺 죽일 살/牛 소 우)’이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같은 한자성어로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있다. 둘 모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와 같이 작은 것을 바꾸려다 큰 것을 잃는다는 뜻이다.

[오답 해설]

- ① 개과불린(改過不吝) 改 고칠 개/過 지날 과/不 아닐 불/吝 아낄 린
허물을 고침에 인색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
-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輕 가벼울 경/舉 들 거/妄 망령될 망/動 움직일 동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한다는 뜻으로, 도리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함을 이른다.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附 붙을 부/和 화할 화/雷 우레 뇌/同 한가지 동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함

출제범위: 한자 - 한자성어

7. <보기>의 단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음운 변동은?

<보기>	
• 꽃내음[꼰내음]	
• 바깥일[바깥닐]	
• 학력[항녁]	

[정답: ③]

세 단어 모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비음화’가 일어났다.

‘꽃내음’ 음절끝소리규칙	→	[꼰내음] 비음(동)화	→	[꼰내음]
‘바깥일’ ↳첨가, 음절끝소리 규칙	→	[바깥닐] 비음(동)화	→	[바깥닐]
‘학력’ 비음화	→	[학녁] 비음(동)화	→	[항녁]

출제범위: 문법 - 음운론

8.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의존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할 수 있다. <조사>
- ② 오늘은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이럴 수가 있다 말인가? <감탄사>
- ③ 그 아이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명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 ④ 그는 이지적이다. <명사>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 <관형사>

[정답: ③]

‘백(百)’은 수사, 관형사로 쓰인다. 수사로 쓰일 경우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으며, 관형사로 쓰일 경우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만큼’은 조사와 의존명사의 두 품사가 있으며, 구분법은 앞말이 관형사형 어미로 끝날 경우 의존명사, 앞말이 체언으로 앞말과 붙여 쓸 경우 조사이다.
- ② ‘아니’가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낼 경우’는 품사가 부사이며, ‘묻는 말에 부정하여 답하거나,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일 때는 감탄사이다.
- ④ ‘-적’은 명사 또는 명사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이지적’은 접미사 ‘-적’이 붙어 관형사, 명사의 품사를 가진다.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이지적이다’에서 ‘이지적’은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지적 인간이다’에서 이지적은 뒤에 오는 ‘인간’을 수식한다는 데서 관형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제범위: 문법 - 형태론

9. 1960년대 한국 문학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후 문학의 한계에 대한 극복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 ② 4·19 혁명의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진영 간의 논쟁이 발생하였다.
- ④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답: ④]

4·19 혁명으로 독재 정권의 붕괴, 5·16으로 군사 정부의 등장 등으로 1960년대는 정치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시기이다. 또한 물질만능주의, 급격한 산업화라는 환경 속에서 인간의 존립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짙은 시기이다.

민족문학과 민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의 문학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960년대 참여문학은 1970년대 민족문학론으로 구체화되었으며, 백낙청, 김병걸, 구중서, 임헌영이 민족문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민중문학은 1980년대 민중운동의 성장과 함께 발전한 문학이다.

[오답 해설]

- ① 1960년대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 하였으며, 이에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와 같은 작품이 있다.
- ② 4·19 혁명은 독재 정권에 대한 온 국민의 저항 운동으로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성이 짙은 계기가 되었다. 이 영향으로 현실비판문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 ③ 참여문학과 순수문학 간의 논쟁은 1960년대의 특징이다. 전쟁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 참여의 주지주의 문학과 전통 지향적인 순수 문학이 흐름이 뚜렷한 시기이다. 참여문학의 대표 작가로는 신동엽, 김수영 등이 있으며, 순수 문학의 대표 작가는 서정주, 박재삼 등이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실존주의 문학도 짙어지며 이에 속하는 작품으로는 손창섭의 <비오는 날>, 장용학의 <요한시집>이 있다.

출제범위: 문학 - 문학사

10. <보기>에서 밑줄 친 부분의 발음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손 자: 할아버지, 여기 있는 ㉠발을 우리가 다 매야 해요?

할아버지: 응, 이 ㉡발만 매면 돼.

손 자: 이 ㉢발 모두요?

할아버지: 왜? ㉣발이 너무 넓으니?

- ① ㉠: [바슬]
- ② ㉡: [반만]
- ③ ㉢: [받]
- ④ ㉣: [바치]

[정답: ①]

‘발을’의 올바른 발음은 [바틀]이다. 앞말이 받침을 가지고 있고, 뒤의 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 앞말이 받침이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소리나는 연음 법칙이 일어난다.

[오답 해설]

- ② 발만 → [반만] → [반만]: 음절끝소리규칙, 비음동화가 일어남
- ③ 발 [반] : 음절끝소리규칙
- ④ 발이 [바치]: 구개음화

구개음화 참고

<표준 발음법> 제17항 받침 ‘ㄷ, ㅌ(ㄹㄹ)’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출제범위: 문법 - 음운론

11.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 ① 채식주의자
- ② 식육 생산의 실상
- ③ 동물을 먹는 행위
-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정답: ①]

<보기>는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는 내용이며, 폭력적 이데올로기란,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서는 육식을 하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만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이며, ‘① 채식주의자’는 비판 대상이 아니다.

출제범위: 비문학 - 중심 내용 파악하기

12. 나이와 한자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62세 - 화갑(華甲)
- ② 77세 - 희수(喜壽)
- ③ 88세 - 백수(白壽)
- ④ 99세 - 미수(米壽)

[정답: ②]

‘희수(喜壽)’는 초서체로 썼을 때, 七十七 의 모양과 같다는 데서 77세를 가리킨다.

[오답 해설]

- ① 화갑(華甲): ‘환갑(還甲)’과 같은 나이인 61세를 이르는 말이다.
- ③ 백수(白壽): ‘일백 백(百)’에서 ‘한 일(一)’을 뺀 모양이 ‘白’과 같다는 데서 99세를 가리킨다.
- ④ 미수(米壽): 모양을 파자하면 八十八의 모양과 같다는 데서 88세를 가리킨다.

출제범위: 어휘 - 나이

13. 맞춤법 표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렇게 하면 되?
-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 ③ 서로 도와고 사는 게 좋다.
- ④ 그 사람은 제가 잘 압니다.

[정답: ④]

‘잘’은 부사로 뒤의 ‘알다’와 띄어 적어야 한다. ‘잘√알다’

[오답 해설]

- ① 이렇게 하면 돼 (되 X, 돼 O)
- ② 이번에는 꼭 합격할께요. (께X, 게O): ‘ㄱ’ 뒤에 된소리가 나더라도 예사소리로 적는다.
↳ 표준 발음법 제27항 붙임 규정 참고: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③ 서로 돕고 사는 게 좋다 (도우고X, 돕고O): ‘돕다’는 규칙 활용하는 용언이다.

출제범위: 어문규정 - 한글 맞춤법

1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그곳에서 갓은 고생을 다 겪었다.
- ② 우리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 ③ 인천으로 갔다. 그리고 배를 탔다.
- ④ 아기가 방글방글 웃는다.

[정답: ①]

‘갓은’은 관형사로서 뒤에 오는 명사 ‘고생’을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다. 나머지 ② ~ ④는 부사로 서술어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기능을 지닌다. 어휘: ‘갓은’ (관형사) : 골고루 다 갖춘. 또는 여러 가지의.

[오답 해설]

- ② ‘바로’ (부사): 다른 것이나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특정의 대상을 집어서 가리키는 말.
- ③ ‘그리고’ (부사):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
- ④ ‘방글방글’ (부사):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자꾸 귀엽고 보드랍게 웃는 모양.

출제범위: 문법 - 형태론

15.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 ①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 밖에 없다.
-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 ③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깨나 했나 보다.
- ④ 동해로 가는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정답: ②]

띄어쓰기가 가장 적절한 문장은 ‘②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이다.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오답 해설]

- ① 수√밖에 → 수밖에
- ③ 공부√깨나 → 공부깨나
↳ 깨나(조사):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④ 가는김에 → 가는√김에
↳ 김(의존명사): 어떤 일의 기회나 계기.

출제범위: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16.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망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 ① 반영론적 관점
- ② 효용론적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 ④ 객관론적 관점

[정답: ②]

<보기>에서 ‘나’가 이광수 <무정>을 읽으며 느낀 감정을 묘사한 부분과, 그 작품이 21세기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고 표현한 부분에서 <보기>는 ‘효용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비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제범위: 문학 - 문학이론 일반

17.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 아닌 것은?

- ①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
- ②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척한다.
- ③ 요리 맛이 어떤지 일단 먹어는 본다.
- ④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알아 간다.

[정답: ①]

이 문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다. 보조 용언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이다.

★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구별법

용언이 겹쳐 나올 때 제일 앞에 오는 용언은 본용언이며, 두 번째 이하의 용언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보조 용언이다.

-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을 때, 그 용언은 보조 용언이다.
- 단독으로 서술어가 되더라도 문장에서 쓰인 의미와 다를 때 보조 용언이다.

이에 따라 ①을 보았을 때, ‘영수는 쓰레기를 주웠다.’와 ‘영수는 쓰레기를 버렸다’ 두 문장이 결합된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영수는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다.’는 ‘본용언+본용언’의 결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④의 선지에서 ‘척하다’, ‘보다’, ‘가다’는 모두 보조 용언으로 쓰였으며 각각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② 척하다: (보조 동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거짓으로 그럴듯하게 꾸밈을 나타내는 말

③ 보다: (보조 동사) 1.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는 말. 2. 어떤 일을 경험함을 나타내는 말.

④ 가다: (보조 동사)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말.

출제범위: 문법 - 형태론

1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郎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郎道)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정답: ①]

글 처음에 ‘화랑도(花郎道)’, ‘화랑도(花郎徒)’를 정의하고 있다.

[오답 해설]

-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는 부분은 없다.
- ③ 반론을 위한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으며,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의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오답에 해당한다.
- ④ 통계적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사례를 제시하는 부분은 없다.

출제범위: 비문학 - 서술 방식

19. <보기>의 사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 보자 ㉡漢江水야 ㉢ 故國山川을 떠난고자 허라마는 時節이 하 ㉣殊常하니 올동 말동 허여라 - 김상헌
--

- ① ㉠의 다른 명칭은 ‘인왕산’이다.
- ② ㉡은 여전히 사용하는 명칭이다.
- ③ ㉢의 당시 국호는 ‘조선’이다.
- ④ ㉣은 병자호란 직후의 상황을 뜻한다.

[정답: ①]

이 시조는 조선 인조 때, 김상헌이 봉림 대군과 함께 청나라로 볼모로 잡혀가며 고국을 떠나면서 느끼는 심정을 노래한 시조이다. 여기에서 ‘삼각산’은 북한산을 가리킨다.

[오답 해설]

- ② 한강의 한자 표기 ‘漢江’으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이 시조는 조선 인조 때 지어졌으므로 적절하다.
- ④ 시절이 ‘수상’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병자호란 직후의 조선의 굴욕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출제범위: 고전문학 - 시조

20. <보기>는 어떤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설 속 지명은?

<보기>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 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바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פות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다 놓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였듯이 당신을 햇볕 속으로 끌어 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을/를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다시 나는 그 편지를 읽어 봤다. 또 한번 읽어 봤다. 그리고 찢어 버렸다.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 속에 앉아서 나는 어디쯤에선가 길가에 세워진 하얀 팻말을 보았다. 거기에는 선명한 검은 글씨로 ‘당신은 ()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씌어 있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① 삼포 ② 서울 ③ 거제 ④ 무진

[정답: ④]

이 작품은 김승옥의 <무진기행>이다. <무진기행>은 주인공 ‘나’의 심리 묘사와 외부로부터 단절시키는 ‘안개’라는 장치를 통하여 현실 속에 던져진 자기 존재를 파악하는 내용이다. 지문의 내용은 <무진기행>의 결말에 해당하며, 아내가 있는 ‘나’가 무진에서 만난 ‘하인숙’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만 결국 현실과 타협해버리는 부분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무진’이다.

[오답 해설]

- ① ‘삼포’는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을 통하여 만들어낸 오답이다.
 ② 주인공이 서울로 가고 있는 것이므로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작품에서 ‘거제’는 등장하지 않으며, 거제가 등장하는 문학 작품으로는 장용학의 <요한시집>이 있다.

출제범위: 문학 - 현대 소설